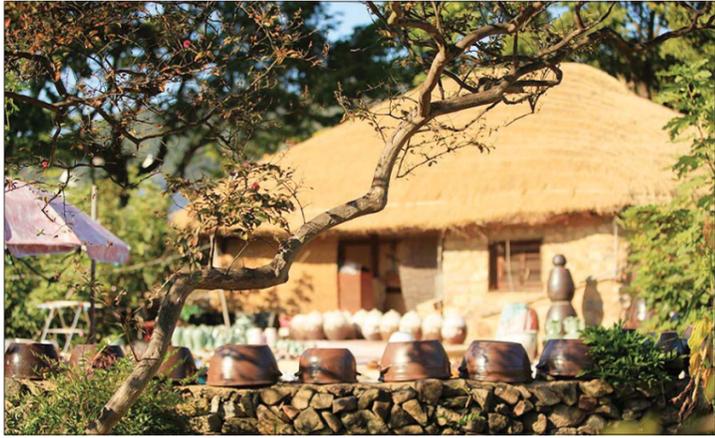


관광객 머무는 전남 만든다... 2026년까지 명품 숙소 확충

숙박시설 1만7617실로 확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예산 ↑
문화유산 활용 관광명소화 추진



전라남도는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다양하게' 전남관광을 즐기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순천 낙안읍성.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국내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다양하게' 전남 관광을 즐기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표 실현을 위해 전남도는 명품 숙박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만631실인 고급형 명품 숙박시설을 2026년까지 1만 7617실로 확대하는 등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동부권에는 명품 숙박시설인 쏘노 캄 여수를 비롯해 풀빌라 시설이 가득하며 서부권에선 진도 솔비치(576실), 신안 씨원리조트(415실) 등 명품 리조트가 완공돼 손님을 맞고 있다. 목포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236실)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당초 6800억 원 규모였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도 3조원으로 확대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조성,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 곳곳을 핫플레이스로 만들 계획이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설립하

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사업도 추진한다.

방문의 해 프로그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자원 관광상품', '힐플레이스 투어 상품', '청년대상남도 문화관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라남도 캠핑박람회(8월 해남 오시

야노)', 'EDM 페스티벌(10월 구례 천은사)', '드론 나이트 쇼(10월 목포 노을공원)' 등 다양하다. 명랑대첩 축제(9월 30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10월 7일) 등 지역 곳곳에서 70여 개에 이르는 계절별, 테마별 축제와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외국인 방문객이 첫발을 딛는 무안 국제공항에는 새롭게 오픈형 안내소를 설치하고, 휴게공간과 DID 키오스크, 포토월 등을 조성했다. 앞으로 특산물판매장도 설치하고, 안내소에는 외국어 서비스를 위한 인력도 운영한다. 개별관광객이 가이드 없이도 공항에서 무안·순천터미널까지 어려움 없이 찾아가도록 국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어 등 5개 다국어 안내표기와 키오스크 등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프라인 환경뿐 아니라 스마트 관광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3년연속 표창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을 이끌다!로 기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을 이끌다!는 완도군 군외면 일부 지역의 경우 「섬발전 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주민들이 부담하게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주민 면담, 조사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반영됐다.

군은 제도 개선으로 섬 지역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올 공공비축미 9만1322톤 매입

경남도는 정부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경남 쌀 9만 1322톤 매입 계획을 시군별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섰다.

올해 매입량은 정부가 10만 톤을 확대하여 총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대비 1만 7849톤이 늘어난 9만 1322톤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공비축미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매입량으로 계속 하락중인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경남=장병호 기자

광양시, 포항 태풍피해 복구 참여

광양시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시민을 위로하고자 피해복구에 참여한다.

오창석 자원봉사팀장을 비롯해 사)광양시 새마을회, 사랑나누기, 포스코마음어음봉사단 등 7개 단체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자원봉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장비와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식사를 제공했다. /전남(광양)=김용학 기자 jijacecom@

도시에 다채로운 색을 올린다

광주미디어아트 29일 개막

정상급 음악가 공연의 광장 축제
GMAF 미디어아트 수상작도 전시

2022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하 'GMAF 2022')이 29일부터 10월9일까지 5·18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GMAF 2022는 '도시에 색을 올린다(Color of City)'를 주제로 유명 미디어아트 작가와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국내 정상급 음악가 공연의 광장축제로 준비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기간 5·18 민주광장에는 주무대 'GMAF 미디어큐브'가 설치돼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크라이넛, 노브레인 등 정상급 케이팝(K-POP) 그룹, 일렉트로닉 뮤직(Electronic Music) 밴드 이디오테일, 디제이(DJ)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프린지페스티벌, 버스커즈월드컵 등 지

역문화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오스트리아 린츠)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 토루 이즈미다(Toru Izumida, 일본)와 유진 고드노브(Eugene Godunov, 미국)가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음향·영상 행위 예술(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을 선보여 글로벌 미디어아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초청 작품과 국내 유수의 미디어아트 기업인 자이언트스텝 등이 참여하고 RG Bst 임용현, 이수진, Collective ROM 등 국내 미디어 작가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1회로 진행된 'GMAF 미디어아트 공모전' 수상작 5개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보성키위',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된다

원산지 이름, 상표권으로 인정
4년여 만에 심의위 최종 통과

보성군의 '보성키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지리적표시로 등록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현재 보성군은 지리적표시 제로 농산물 제1호 '보성녹차', 농산물 제71호 '보성웅치올벼쌀', 수산물 제1호 '별교꼬막'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성군은 그동안 '보성키위'를 지리적표시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1, 2차에 걸쳐 품관원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고, 4년여 만에 심의위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품관원 심의위는 '보성키위'를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로 심의 등록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등록 사실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11월께 '보성키위'가 최종 등록되고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받게 된다.

보성키위는 전국 최대 재배면적과 전국 키위 생산량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약 40년 이상의 오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성키위'가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되면 키위 품목으로는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키위가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되면 보성키위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판매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보성키위 생산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경남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경상남도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경남 기준,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

약 23,251ha, 21만1,296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81ha, 3,908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3,832ha의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모든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된다. /경남=장병호 기자

울산시, 민선8기 시정이상 디자인 확정

민선8기 울산시 시정이상(비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디자인이 확정됐다.

디자인의 글씨체는 시정이상으로서의 품격을 고려해 정통 서예기법이 전제된 '캘리그래피형 로고타이프'로 중량감을 부여하였다.

캘리그래피형 로고타이프란 손글씨를 이용하여 일반 글씨와 달리 상징적인 의미, 글씨의 크기 모양 색상 입체감으로 미적 가치를 높여 특별하게 디자인하거나 문자를 도안한 것을 말한다.

새로의 '새'와 위대한의 '위'를 강조해 힘찬 느낌으로 역동성을 부여하



고, 획수가 많은 '울'도 크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독창성, 가독성, 심미성을 주었다.

또한, 울산의 'o'은 한반도 육지해안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의 태양을, 'r'은 태화강의 도도한 물줄기를 표현하였으며 산의 's'은 가시산을 비롯한 울산의 명산을 나타냈다.

색상은 간절곶과 가시산의 일출을 상징하는 붉은 색과 울산의 태화강과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색을 활용했다.

/울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